

방송제 기획 줄거리:

[제목 :]

기획 - 권우현

촬영 및 편집 -

출연1 - 문태훈 (김현섭)

출연2 - 임수영 (지연진)

출연3 - 정민구 (정서준)

출연4 - 양정인 (강여진)

출연5 - 최옥만 (주승현)

출연6 - 유복희 (신유진)

S#1 방송국 내부

(페이드 인)

(다음 날 아침이 되어 다시 방송국 내부로 하나, 둘씩 들어오는 사람들. 숙소에서 자는 것들은 구현가능성이 없어서 생략합니다. 중앙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 먼저 입을 여는 태훈.)

태훈: 다들 숙소는 어땠어?

수영: 나쁘지 않던데?

태훈: 그니까, 생각 보다 좋아서 놀랬다.

수영: 너 옥만이랑 또 싸운건 아니지?

태훈: 야, 내가 싸움꾼도 아니고.

수영: (웃으며) ㅋㅋㅋ 장난이야.

(둘이 대화하던 중 방송이 나옵니다. 호감도 투표 얘기와 마피아에게 지목된 사람에 대한 방송.)

방송: (방송 시작음)

태훈: 오, 방송 나온다.

방송: (NR) 호감도 투표와 마피아의 지목이 완료되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사물함을 열어 호감을 표시한 종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피아의 지목도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방송 종료음)

(방송이 끝나고 다 같이 사물함으로 가 종이를 확인합니다. 순서대로 종이를 꺼내는 모습을 찍어주세요. 먼저 수영이 사물함을 열어 종이를 확인하는 모습. 2개의 종이가 들어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수영. 종이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그리고 어젯밤 자신을 투표한 사람들의 모습을 회상으로 보여줍니다.)

수영: (종이를 확인하고, 입꼬리가 올라가며)

태훈: (종이에 수영의 이름을 쓰며, 어젯밤 회상) 그래, 그래도 수영이가 좀 내 스타일이긴 하지

민구: (종이에 수영의 이름을 쓰며 아무 말 없이, 어젯밤 회상)

(태훈이 사물함을 열어 종이를 확인하는 모습. 사물함에는 아무것도 없다. 표정이 찡그러지는 태훈.)

태훈: (표정이 좋지 않다)

(다음은 정인이 사물함을 확인한다. 종이가 하나 들어있다. 다행이라는 듯 웃음을 짓는 정인)

정인: (다행인 듯 미소를 짓는다)

(복희 사물함을 확인한다. 사물함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표정인 복희)

복희: ...

(민구가 사물함을 확인한다. 2개의 종이가 들어있는 사물함. 깜짝 놀라는 민구)

민구: (종이를 확인하고 깜짝 놀란다)

수영: (종이에 민구의 이름과 “민구야 친해지자”라 쓰며, 어젯밤 회상) 민구

야, 믿는다?

정인: (종이에 민구의 이름을 쓰며, 어젯밤 회상) 아.. 태훈이는 좀 그렇고, 옥만이는 너무 무서운데.. 일단 민구 써야겠다..

(옥만이 사물함을 확인한다. 1개의 종이가 들어있는 사물함. 무덤덤한 옥만.)

옥만: ...

(모두가 사물함 확인이 끝나고 각자 종이를 들고 중앙 테이블로 돌아와 앉는다. 표정이 좋은 수영, 정인, 민구. 태훈은 표정이 좋지 않다. 복희와 옥만은 무표정이다. 그때, 태훈이 마피아한테 지목 당한 사람은 누구냐고 입을 연다.)

태훈: (좋지 않은 표정으로) 그럼, 마피아한테 지목 당한 사람은 누구야?

수영: 응? 너 아니야? 나는 너가 당할 줄 알았는데~

태훈: 아니야, 내 사물함에는 아무 것도 없었어.

수영: 옹? 그럼 옥만이 지목 당했나?

옥만: ...

정인: 옥만..이 지목 받은거야? 아니면 민구?

민구: 어.. 나는 아니야.

수영: 그럼 옥만이가 맞나?

옥만: 난 아니다.

태훈: 뭐야, 그럼 누군데? 나는 종이가 없다고.

(모두가 마피아에게 지목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 하던 중 방송이 나온다.)

방송: (방송 시작음, NR) 지난 밤 마피아에게 지목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바로 마피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마피아를 투표해 주시

기 바랍니다. (방송 종료음)

(마피아가 없다는 소리에 당황하는 사람들. 마피아가 누구인지 투표하려고 하던 중 수영이 당한 사람이 없으니 투표를 넘기자고 주장한다.)

정인: 그럼 마피아 투표를 할까..?

태훈: 나는 솔직히 욱만인 것 같아. 나는 절대 아니거든

정인: 그걸 어떻게 믿어..

욱만: (태훈을 노려본다)

수영: 아니, 그러지 말고 당한 사람도 없는데 그냥 넘어가는 건 어때?

복희: 나는 좋은 것 같아.

민구: 어.. 나도.

태훈: 넘어가자고? 음.. 그래.

수영: 욱만, 괜찮지?

욱만: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게 투표 스킵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장면이 전환되어 어젯밤 호감도 투표와 마피아 용지를 적는 욱만의 모습으로 넘어간다. 호감도 투표에는 정인의 이름과 “굿”이라 적고, 마피아 용지를 한참 바라보다 아무것도 적지 않고 투표함에 넣는 욱만의 모습. 다시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다시 장면이 돌아와, 6명이 각자 자리에 앉아있다. ex) 쇼파에 앉아 있는 욱만, 테이블에 앉아 있는 수영 등. 자연스럽게 배치 해주세요. 그리고 방송이 나온다. 내용은 오늘의 미션과 일정 방송)

방송: (방송 시작음 후, NR) 오늘은 야외데이트가 있습니다. 잠시 후 야외데이트 결정권 획득을 위한 남자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물함

에는 각 플레이어들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럼 남자 플레이어들은 5분 뒤, 중앙 테이블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방송 종료음)

정인: (기대되는 눈빛으로) 와! 남자게임을 한다고?

수영: (웃음을 지으며 민구를 바라보는 수영)

복희: (알 수 없는 표정)

태훈: (한껏 들떠) 드디어 제대로 뭘 해보겠네~

옥만: (무표정) ...

민구: (살짝 겁먹은 표정으로) 으...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남자 참가자들은 중앙 테이블에 모여 있고, 여자 참가자들은 쇼파에 앉아있거나, 테이블 근처에 서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나옵니다.)

방송: (방송 시작음 후, NR)오늘 데이트 결정권을 건 남자 플레이어들의 게임은 “팔씨름”입니다. 단, 평소에 알던 팔씨름과 달리 이번에는 서로의 팔을 당겨서 자신의 손등이 바닥에 먼저 닿게 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3명의 플레이어들 모두 한 번씩 상대와 겨루고, 승패가 동점일 경우에 한하여 우승자 결정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를 정하여 팔씨름을 진행해 주십시오. (방송종료음)

태훈: (옥만과 민구를 번갈아 보며) 순서, 어떻게 할래?

옥만: (잠간의 침묵 후) ... 먼저하지.

태훈: 그럼 우리 둘이 먼저 하는 걸로, 민구 괜찮지?

민구: (고개를 끄덕인다)

(팔씨름을 시작하는 태훈과 옥만. 둘은 처음에 박빙을 이루나 싶지만, 시간이 흐를수

록 태훈의 표정은 일그러지고, 옥만은 여전히 무표정이다. 결국 접전 끝에 옥만이 먼저 자신의 손등을 땅에 닿게 함으로써 옥만의 승리. 곧바로 옥만은 민구와 팔씨름을 진행한다.)

태훈: (안간 힘을 쓰며) 으아아아아, 안돼!

옥만: 다음 바로 하지.

민구: (짙은 목소리로) 바로..? 팬..참아?

옥만: (고개를 끄덕인다)

(옥만, 민구를 너무 쉽게 이긴다. 맥없이 넘어가는 민구. 보기가 안쓰럽다. 옥만이 팔씨름을 2대0으로 가져가면서 데이트 결정권은 옥만이 가지게 된다. 팔씨름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다시 테이블에 모여있다. 그리고 방송소리)

방송: (방송 시작음 후, NR) 팔씨름 대결의 승리자는 최옥만 플레이어입니다. 최옥만 플레이어는 함께 야외데이트를 할 여성 플레이어를 선택하여 나가시면 됩니다. (방송 종료음)

태훈: (옥만을 보며) 다음은 꼭 이겨준다

옥만: (태훈을 보며 냉정하게) 그래라.

태훈: (분하다는 듯) 아오, 열받아

(여성 참가자들 모두 옥만을 바라보고 있다. 은근한 기대를 보이는 여성 참가자들의 표정. 옥만은 수영과 복희를 한 번씩 보고나서 정인을 오랫동안 쳐다본다. 그리고 정인을 골라 데리고 나가는 옥만.)

수영, 정인, 복희: (아무 말 없이 옥만을 바라본다)

옥만: (수영, 복희를 보고 나서 정인을 한참 바라보다) 가자.

정인: (살짝 놀라며) 저요? 아.. 아니, 나?

옥만: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게 옥만과 정인은 함께 나간다. 문 밖으로 나가는 둘을 바라보는 나머지 참가자들.)

수영: 오.. 옥만씨, 정인이한테 관심있었나 보네?

태훈: (안도의 한숨을 쉬며) 휴, 너나 복희는 아니라 다행이다.

수영: (태훈을 보며) 꿈 깨. 난 너 안중에도 없으니까.

태훈: 찻, 두고 봐.

민구: 이제 뭐 하지..

수영: (열은 미소를 지으며) 민구, 같이 놀면 되지~

태훈: 나는?

수영: 너는 복희랑 놀아.

태훈: (복희를 바라보며) 그럴까?

복희: (멋쩍은 표정을 짓는다)

(그렇게 남은 참가자들이 뭘 할지 고민을 하는 모습을 담다가 페이드 아웃.)

S#2 야외

(옥만과 정인이 거리를 걷는다. 말없이 어색하게 걷던 둘. 정인이 먼저 입을 연다)

정인: 근데 왜 나를 골랐어?

옥만: ... 너가 예뻐다.

정인: (살짝 놀란 표정으로) 와, 너 그런 말도 막 할 줄 아네?

옥만: ...

(둘이 시덥잖은 얘기를 나누며 거리를 걷는 장면을 소리 없이 넣어주세요. 대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페이드 아웃)

S#3 카페 (카페 어디로 하지)

옥만: (정인을 바라보다) 정인, 너는 이 곳에 왜 지원했나

정인: 나? 나는 연애도 하고~ 돈도 벌고 싶어서 했지? 너도 그렇지 않아?

옥만: 음.. 그렇지.

정인: ..나 궁금한거 있어.

옥만: 뭔가?

정인: (가자미 눈을 뜨며) 너 솔직히 돈 벌려고 온거지.

옥만: 내가 말인가?

정인: 어~ 솔직히 완전 웃지도 않고, 되게 딱딱하거든 너.

옥만: 음, 미안하다. 정인. 나도 할 말이 있다.

정인: (살짝 기대하는 느낌으로) 뭔데?

옥만: (진지하게) 배고프다. 일단 뭐부터 시키자.

정인: (당황하며) 아.. 어.. 그래..

(직원을 부르는 정인, 직원이 테이블로 다가오는 모습을 찍으며 페이드 아웃.)

S#4 방송국 내부

(페이드 인)

(할리갈리를 하고 있는 나머지 4명의 참가자들. 제법 많이 친해져 서로 잘 놀고 있는 모습. 복희 앞에 많은 카드가 놓여있고, 복희가 종을 빠르게 누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태훈: (종을 빠르게 누르는 복희를 바라보며) 와, 복희야 너 이런데 완전 재능 있네?

수영: 그니까, 손이 너무 빨라.

복희: (머리를 긁적이며) 히, 그정도는 아니야.

태훈: 아니긴, 지금 너 앞에 카드 봐봐. 지금 민구는 카드 하나도 없다고.

복희: (민구를 바라보며) 앗, 미안..

민구: (고개를 저으며) 어 아니야, 그냥 내가 못해서 그런건데 뭘..

수영: 그래~ 미안할게 뭐 있어. 게임은 게임인데~

태훈: 하.. 야외데이트 하면 느낌 완전 다르겠지?

수영: 안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긴 하네, 나가서 시원한 아아 먹고싶다.

(한탄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을 뒤로하고, 페이드 아웃)

S#5 방송국 내부(저녁)

(페이드 인)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 지루해하는 참가자들. 야외데이트를 나간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태훈: 이제 올 때 되지 않았나?

수영: 상당히 재밌나 본데?

태훈: 하, 다음 게임은 꼭 이기고 만다.

수영: 근데, 다음 게임은 여자들이 하지 않을까?

태훈: 아, 맞네. (수영을 빤히 쳐다본다)

수영: (태훈의 낯을 알아채고) 꿈 깨라 했다.

민구: (둘의 모습을 썩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둘이 티격태격 하던 중. 마침내 옥만과 정인이 돌아온다. 옥만의 소매를 잡고 들어오는 정인.)

수영: 드디어 왔네.. (정인이 옥만의 소매를 잡고 있는 걸 보고) 어? 둘이 뭐야?

태훈: (태훈이 옆에서 거든다) 벌써? 너무 빠른거 아니야?

옥만: (가만히 태훈을 바라본다)

정인: (재빨리 손을 떼는 정인 그리고 멍쩍은 웃음을 짓는다)

(그리고 곧 이어 나오는 방송. 마피아가 여성 쪽에서 선정되었다는 이야기. 모두들 깜짝 놀란다.)

방송: (방송 시작음 후, NR) 오늘의 마피아가 결정되었습니다. 마피아는 “여자”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피아가 나오지 않은 남자쪽에서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미션은 동일합니다. 9시까지 먼저 성공한 사람이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9시 이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종료음)

수영: (깜짝 놀라며) 누가 미션을 성공했어?

정인: (놀라며) 여자 쪽이랑은요?

태훈: (수영을 바라보며) 야 임수영, 너인거 티 너무난다

수영: 나 진짜 아니야

태훈: 아니긴 뭘 아니야. 아까 게임할 때 은근 나한테 플러팅 하더니 그거였구만.

수영: (징그럽다는 듯이) 뭐? 플러팅? 내가 너한테?

태훈: 그래, 아까 할리갈리 할 때, 일부러 늦게 종 치면서 내 손 터치하더라.
그거 아니야?

(잠깐 회상으로 넘어가서 할리갈리 할 때, 수영이 살짝 늦게 종을 쳐 태훈의 손등에 닿는 장면을 넣어주세요. 다만, 의도가 아니라 진짜 늦은 것 뿐입니다.)

수영: (기가 막히다는 듯) 야, 그건 그냥 내가 게임을 못 한거고!

태훈: 아, 예예~

수영: 아 짜증나, (복희를 바라보며) 복희인가..

(그때 민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그리고 그걸 들은 듯한 수영과 태훈. 수영이 민구에게 살짝 놀라 뭐라고 했는지 되물으려다 정인의 말에 묻히게 된다.)

민구: (엄청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X발..

태훈: (민구의 중얼거림을 얼핏 듣고 흠칫하며 민구를 스윽 바라본다)

수영: (역시 얼핏 듣고 민구에게) 민구야 너 지금 뭐라..

정인: 저희가 선물을 사 왔어요!

(정인이 선물을 사 왔다면서 커피와 간식거리를 꺼낸다. 금방 거기에 정신이 팔리는 참가자들)

수영: 커피다!!

(정인이 사온 간식거리를 먹는 사람들.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시간은 어느 덧 흘러 호감도 투표 및 마피아 지목 시간이 되었다. 의사 선택권도 정해진 상황.)

수영: 벌써 투표 시간이네..

정인: 시간 진짜 빨라 근데 오늘은 마피아도 모르겠고, 의사도 누가 됐는지 전혀 모르겠어

(잠깐 과거 회상으로 돌아간다. 시간은 오후 9시 오늘의 의사도 결정되었다는 방송. 그리고 사람들이 놀란다.)

방송: (방송 시작음 후, NR) 오늘의 의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오후 10시에 호감도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태훈: 앵? 의사도 정해졌다고?

수영: 와, 너 연기 진짜 못한다.

태훈: (옥만을 바라보며) 옥만, 언제 했냐?

옥만: (조용히 태훈을 바라본다) ...

(다시 현재로 돌아와 투표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는 방송이 나온다.)

방송: (방송 시작음 후, NR) 호감도 투표 및 마피아의 지목, 그리고 의사의 선택이 있겠습니다. 모두 차례로 방에 들어가 자신의 용지에 상대방의 이름을 적어 투표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다들 방에 들어가 종이에 무언가를 적고 투표함에 넣는 모습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으로 넘어 갑니다. 페이드 아웃)

S#6 방송국 내부(3일 차 아침)

(페이드 인)

(문을 열고 하나 둘 씩 자리에 모이는 참가자들. 다들 테이블에 앉아 방송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정인)

태훈: 정인이는?

수영: 응? 아침에 일어나니까 없던데? 그래서 여기 먼저 온 줄 알았지

민구: 내가.. 제일 먼저 왔는데, 아무도 없었어.

수영: 엥? 뭐지? 방에는 없었는데.

(모두가 정인의 행방을 의아해하던 도중 정인이 들어온다.)

정인: (문을 열고 들어오며) 미안 ㅎㅎ, 잠깐 화장실 갔다오느라 늦었어!

수영: 아 뭐야, 너 탈락된 줄 알고 놀랐잖아.

정인: 에이~ 설마.

욱만: (정인의 모습을 보고 살짝 안도한다.)

(곧이어 방송이 나온다.)

방송: (NR) 호감도 투표와 마피아의 지목이 완료되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사물함을 열어 호감을 표시한 종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피아의 지목도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방송 종료음)

(각자 사물함을 열어 종이를 확인한다. 각자 자신의 종이를 확인하던 도중 정인이 소리 친다. 그리고 곧이어 나오는 방송)

정인: (깜짝 놀라) 깽! 내 사물함에 종이가 있어..

태훈: 뭐, 진짜?

방송: (NR) 지난 밤,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번 밤의 희생자는 “양정인”씨 입니다. “양정인”씨는 방으로 돌아가 짐을 싸서 이 곳을 떠나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마피아가 누구일지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영: 그냥, 이대로 바로 탈락이라고?

욱만: (처음으로 눈이 흔들리는 듯한 욱만)

민구: 말도 안돼..

정인: (약간 울먹이며) 흑.. 탈락이라니 너무 아쉬워.

태훈: 너지 임수영?

수영: (극구 부인하며) 아니 나 진짜 아니야.

태훈: 그럼 복희가 했겠냐?

수영: (태훈에게 살짝 화를 내며) 야, 그건 무슨 소리야 복희가 했을 수도 있는거지

태훈: (차분하게) 아니, 복희였으면 용지에 이름을 오히려 안 적어서 냈을거야. 어제 우리 남자들 중에 그랬던 것처럼

수영: (어이없다는 듯) 와, 진짜 어이 없네. 그래 그럼 한 번 투표해 봐.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 알겠네.

태훈: ㅋㅋㅋㅋㅋㅋㅋ 야, 장난이야. 뭘 또 그렇게 받냐

수영: 그게 장난이냐? 너는 진짜 갱생 불가다.

(태훈과 수영이 투닥거리는 사이. 정인이 마지막 인사를 한다.)

정인: 그래도.. 즐거웠어요. 다들, 옥만씨 나가면 연락 드릴게요.

옥만: ...조심히 가.

(그렇게 정인이 문을 열고 나간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영을 마피아로 몰고 가는 태훈)

태훈: (수영을 바라보며) 어쨌든 난 너가 마피아가 맞는 거 같기는 하다. 다른 사람들은?

옥만: (고개를 살짝 끄덕인다)

태훈: 민구랑 복희는?

민구: (망설이다가) 어...

복희: (고개를 살짝 끄덕인다)

수영: 그래, 다들 맘대로 해봐.

태훈: 그럼, 저희는 임수영을 마피아로 지목하겠습니다~

(잠시 후, 방송이 나온다. 하지만 방송에서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수영이 마피아가 아니라는 이야기.)

방송: (방송 시작음 후, NR) 여러분께서 지목하신 “임수영”씨는, (잠시 뜸을 들이며) 마피아가 아니었습니다. 남으신 분들은 사물함을 열어 오늘의 미션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영: (태훈을 찌려보며) 내가 뭐랬냐?

태훈: (수영의 눈을 피하며) 크흠..

민구: 미.. 미안..

복희: (고개를 떨군다)

수영: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다) 됐어, 어차피 게임은 게임인데 뭘. 그럼 복희가 지목한거야?

태훈: (이때다 싶어) 와, 복희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수영: (태훈에게) 넌 좀 닥쳐.

태훈: (쭈굴하게) 넵... 아니 근데, 의사는 누구였지

민구: (조용히 눈치를 보는 민구)

태훈: (그런 민구를 바라본 태훈) 민구, 너였냐?

(어제 민구가 미션을 성공한 장면을 회상으로 보여줍니다. 미션은 복희에게 간식을 챙겨주는 것. 미션지를 읽는 민구의 모습과 그 미션을 성공한 민구까지 회상으로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어들마다 일일이 미션이 무엇인지, 했는지 추가하지 않**

은 이유는 분량 문제 때문입니다. 생략을 해도 이야기의 흐름에 큰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설명하는 것은 일단 제외는 했습니다만, 만약에 추가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복희가 마피아를 했던 것과 민구가 의사를 했던 것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이 옥만이 조용히 사물함에 다가가 사물함 문을 연다. 그리고 안에서 종이를 꺼내는 옥만.)

옥만: (종이를 꺼내며) 이상하군.

(페이드 아웃)

Ep3. END